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장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몽골 단기선교 10일 출발

몽골미 단기선교를 위해 오는 10일 출국할 예정이다. 12일 동안 몽골에서 채우며 진행되는 이번 단기 선교팀은 단장 임무현 장로, 지도 이종대 목사 외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교회 국내외국인선교부에 출석하고 있는 몽골인 성도 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전도 및 초청 집회를 갖는다. 또한 각각 전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개인전도를 하고,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 이번 몽골 단기선교팀은 선교지 정탐을 통해 지속적인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 이들을 위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제4차 학습 세례식 8월27일 찬양예배 시간에

2000년도 제4차 학습 세례식이 8월 27일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시간에 배례될 예정이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 교구 담당 전도사에게 신청하시고, 빠짐없이 학습과 세례 응답을 위한 교육에 모두 참가하시길 바란다.

2000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3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정현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를 (김장관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 (정재성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병대 목사)	교육관 307호		
8월 2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진익 목사)	교육관 407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전영관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금요 집회(8월 11일)

'인간의 응답'에 대하여 아십니까?

지금까지 금요집회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특징적인 신성'과 '최인간 인간의 필요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해 주신 것'을 배웠다. 이번 주 금요집회 시간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알자(Counting the Cost)'는 주제로 '인간의 응답'에 관하여 배우게 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 주 금요집회를 통해서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고 그 해답을 얻게 되길 바란다. 목장해야 할 내용과 성구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개인이 응답이 있어야 한다.
- 거기에 예수님의 요구가 있다. (눅 9:57-62)
-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 (막 8:34-38)
- ② 죄를 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
- 자신을 부인하라.
- 내 십자가를 지라. (갈 5:24, 눅 9:23)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과 은혜를 다함 줄 지체들과 곡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찬양대 지도자 감동회 참가자 합창
'내 진정 사모하는(찬송가 88장)', '나와 주 찬양'
- ② 충현 남성 찬양단 (지도, 반주: 김윤경 집사)
'모든 것 인하여'
- ③ NMC 병원 전도대 (지휘:윤지영, 반주:구자희)
'주가 축복하리라',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찬송가 336장)'

제5회 찬양지도자 감동회

9월(수) 14시부터 12월(토) 13시까지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제5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감동회'가 오는 9월(수) 14시부터 12월(토) 13일까지 3주4일 동안 개최된다. 보다 영역이며 배워 익숙한 것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전국교회 지휘자, 반주자(고등학생 이상)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감동회는 우리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음악지도자와 목회자 30여명이 강의를 담당한다. 접수는 오는 5월 17시까지이며, 참가비는 4만원(6명 이상 단체는 3만원)이고 숙식이 제공된다.

우리교회 성도들도 많이 참석하여 찬양대 지도자로 미리 훈련받아 준비된 일꾼으로 귀히 쓰임받는 좋은 기회로 삼기 바란다. (문의:찬양위원회, 교한 258)

충현초년원 여름성경학교

현신된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정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충현초년원(신촌중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실시하는데, 이를 위하여 교사로 섬길 현신된 일꾼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지적: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

인원: 최소한 15명 이상
문의: 박영덕 전도사(565-3723) 감한호 집사(011-707-2122)

기간: 8월7일-11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제2안(2)

설교기록하기

9월부터 (충현의만나)에 수록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삶에 적용하는 '설교기록노트'의 작성을 제안한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 스스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훨씬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 선포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또한 이를 위하여 9월부터 (충현의만나)에 주일 설교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면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8월의 주요행사

- 정기당회 (9월)
- 제5회 찬양지도자 감동회 (9-12월)
- 제4차 학습·세례식 (27일)
- 여름수련회·여름성경학교
- 하기전도대 파송
- 단기선교 파송
- 하반기 장학생 선발

8월 기도원 담당

노경록 목사 (17교구 지도)

목·정관음

따뭉리는 삶

류 병 회 (목사, 대학부 지도)

무 덩고 짜짜나는 여름에 바다나 계곡물 어디든지 차가운 물에 청병 뛰어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름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땀 흘리며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절로 난다. 방학을 이용하여 아프리카로 돈을 벌러 다니는 해외에 다니며 여러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젊은 시기에 남을 위해서, 아니 주님의 복을 위해서 땀 흘리는 모습은 그만큼 가치가 커줄까? 교회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다. 충현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깨워주는 것 같다. 주님에게 헌신하는 모습은 한복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번 대학부 사역을 젊은이들과 함께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잃지 않고 헌신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고, 오늘날 세상에 광범한 적당주의는 절대대로 참된 삶의 길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속임수를 써서 살고 한탕주의로 일와 천금하며 살 수 있다는 비뚤어진 인생관이 아닌, 참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사는 법을 부모들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며서 일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보람있고 그것이 행복이란 것을 가르쳐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시126:5)

WHO ARE YOU?

(1 Corinthians 2:10-13)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ay understand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The basic answer to this question is a human being. However, did you know that there are two types of human beings?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re are natural and spiritual humans. A natural human being is a person who cannot understand the Spirit of God. A spiritual human being is a person who accepts and understands God's spirit. So, the question who are you is really about which kind of human you have chosen to become. Are you a natural individual or a spiritual individual? A natural man/woman follows and relies on the ways of the world. A spiritual man/woman follows and relies on the Holy Spirit. As a Christian, do your words and actions reflect the Spirit of God or the spirit of this world? Are you a person who is willing to let God's Spirit, the Holy Spirit, totally work on you?

Too many Christians misunderstand the revealing ministry of the Spirit. Instead of dying to self, their lives are entangled in the dangerous web of the world. They hopelessly and tirelessly struggle to mix human wisdom with God's Spirit. Day after day they experience inner-conflict, and wonder why there's no lasting peace in their lives. Today's Bible passage emphasizes the fundamental aspect of the Gospel. It explains that from God you receive the grace of God, and that the grace of God is what helps you to understand God's secrets. God's secrets are revealed through His Spirit, not through man's power.

Actually, the fundamental message of the Gospel is simple and clear. Whoever has natural character lives through their own worldly way. They depend on the world, and the values that come from it. They derive their happiness from worldly things. Whoever has spiritual character lives through the Spirit's

way. They depend on God, and value the things of eternity. They obtain happiness living by, for, and with everything from the Holy Spirit. In other words, humans have only two ways of living, in the natural or in the spiritual. There's no in between! When we look at 2 Corinthians 5:17, we read,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Isn't that powerful? The grace of God makes a new creation, a spiritual person, which results in a changed way of life.

The Holy Spirit teaches nothing but God. He enables, equips, and empowers you only with the truth of God. "For to us God revealed them through the Spirit; for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pths of God" (v. 10). God had revealed His wisdom through His Spirit. Do you believe it? The Spirit even makes known the deep things of God. What are the deep things of God? There are not worldly things. The depths of God deal with the free gift of heaven, Jesus Christ. God freely gives to you His Son, and through Him eternal life. His free gift allows you to communicate with Him, and He with you. Whoever has these deep things not only communicates with God, but is bounded with Him as one. There is unity between you and God because of the Holy Spirit's teachings.

One of the saddest matters is when Christians use worldly language, worldly thought processes in their lives. Sometimes they use spiritual language, but the end result is still their own worldly language. Thinking like that is a big mistake. Spiritual thinking and worldly thinking are two separate components. They are not compatible or interchangeable. Every time you talk, you need to appreciate God's blessings. A Christian's life is about spiritual things, and therefore, requires spiritual talk. If you focus on the worldly things, you can't think

about the spiritual and deep things of God. You're unable to talk spiritually.

Natural wisdom is totally against spiritual truth. Spiritual people understand the truth of God. Natural people cannot understand the truth of God; they can only understand natural reasoning. "For who among men knows the thoughts of a man except the spirit of the man which is in him? Even so the thoughts of God no one knows except the spirit of God" (v. 11). Those who have the Holy Spirit can know the thoughts of God. Those who don't have the Holy Spirit can't know the thoughts of God. Natural people are proud of worldly wisdom. To them it looks like God's idea.

Spiritual people accept spiritual truth. Natural people cannot accept such truth. The worldly spirit works within natural man. For them the principle is natural wisdom, which is away from God's wisdom. Those who stand opposed to worldly wisdom are God's people. They are believers of God, not the world. In them the Holy Spirit works miracles. God can reveal His secrets to those who possess His Spirit. "Now we have received, not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so that we may know the things freely given to us by God" (v. 12). Amen!

Christians don't teach God's truth with human wisdom. The things which they receive from God's Spirit are "not in words taught by human wisdom, but in those taught by the Spirit, combining spiritual thoughts with spiritual words" (v. 13). Do you believe this? Christians don't mix spiritual thought with human wisdom. Do you really understand this truth? Who are you? Are you God's child? Have you seen what God showed to you or do you rely on those in the world who are famous, highly respected, and experienced to follow? Do you really communicate with God, or do you interrupt His Spirit? Are you

applying His Word in your life? Are you discer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isdom of God and the wisdom of humans?

The real truth of wisdom has to be taught by the Holy Spirit, not human wisdom. The Spirit of God is absolutely the perfect teacher. This great teacher researches all things, which humans are unable to do. This great teacher teaches God's people. Natural people can't figure it out! The works of God can't be understood by humans, only the Spirit of God knows them—only the Spirit of God can reveal them.

The Gospel manifests the favor and fellowship of God. It reveals the assurance of sonship and the promise of heirship. It shows the divine truth and imparts divine grace. Amen! Jesus Christ made His own people wisely, righteously, and holy. He made them His redemptive people. The privileges of Christians are that they have wonderful joy and an eternal future. They can rejoice in the face of all adversity. Their eyes can see the works of God, their ears can hear the mighty voice of God, and their hearts can feel the presence of God! Everything is above things, which God Himself made.

Who are you? Are you a true believer? Is your life under the control of the Holy Spirit? I challenge you, my dear friend, to re-evaluate your manner of thinking. Do you mix-up natural and spiritual wisdom? Listen carefully to God's words. Accept them. Obey them. The Gospel has taught you, simply and clearly, the deep things of God. Only the Holy Spirit can reveal God's truth. What a grace! I really cry out, deeply cry out, to you today—please my dear Choong Hyun member, be a spiritual person. Let God's grace define you, and guide you toward the deep things of God. 

다음을 주일 설교



김성곤 목사

당신은 누구입니까?

(고전 2:10-13)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연적이거나 영적인 존재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인간’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영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은 여러분이 실제로 둘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자연적인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믿고 따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습니까 아니면 세속의 영에 지배받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적으로 붙들고 일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입니까?

자연적이거나 영적인 삶의 길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드러내는 사역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은 세상의 위험한 거미줄에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나 실 투도 없이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과 혼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내적 갈등을 겪으며, 왜 삶에 영원한 평안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성경 문본은 복음의 기본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의 은혜를 설명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실,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자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모습대로 세상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소유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은 오직 두 가지 삶의 방법으로 살게 되는데, 자연적인 삶 아니면 영적인 삶입니다. 그 중 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17을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새 피조물, 즉 영적인 인간을 만들고 그 결과 변화된 삶의 길을 창출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

성령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시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10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천상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가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영생을 주십니다. 그의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있도록 만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 깊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할 때인데, 세상적인 생각을 그들의 삶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령한 말도 하지만, 그 종결은 언제나 그들의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호환적이거나 상호 교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번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적인 것이며, 그러므로 영적인 말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나 그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신 성령

자연적인 지혜는 영적인 진리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합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연적인 이성만을 이해할 따름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11절).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겨집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은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원치않은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그들 안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12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은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시니라”(13절).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지혜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명하고 존경받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의존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식별하십니까?

지혜의 진실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배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벽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선생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이 위대한 스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 의해 이해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그의 교제를 명시합니다. 그것은 자녀됨의 확신과 상속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복음은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며 거룩한 은혜를 나누어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람들을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속달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바로 놀라운 기쁨과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앞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신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성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고 방식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지혜를 뒤섞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영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백하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로 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같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생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경이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깊은 것을 향하여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

비 단트 하이레에따 -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 소 혜 (고동부2년)



며칠 후면,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다들 어리지 않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림에 힘입고, 몽골에는 아직 서투른 편인데, 사랑의 섬김도 부족하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도구를 쓰임받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당신의 빛을 발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힘입어, 사랑의 빛을 감으로 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그분, 우리 같은 죄인 중의 죄수를 사랑하신, 그리하여 피로 우리를 사신 그분을 전하려 합니다.

결코 가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곧 세상과 주님 사이의 창문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직분입니다.

몽골어가 아직 서투른 탓에, 그야말로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사막에 샘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그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부르셨으면 응답하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맛보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 단기 선교팀 사람들 각자에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으로 깨어 있어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몽골의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나 가는,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비 단트 하이레에따 -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모든 악의 신들의 날을 전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사탄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최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의심이니 그 열매를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이사야 61:1-3)



10교구 원주반석교회를 다녀와서

성령께서 심방하신 흔적을

정 속 자 (집사, 10교구 간사)

진형적인 한여름 날씨가. 교회의 십자가가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고, 동네 또한 평화롭고 평화롭다. 교회 주변에 옮기총기 모여 있는 100여 기구의 집들, 23명씩 4개조로 나누어 축소 전도를 나갔다. 복음을 전하자 절에 나간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시더니 이상하게도 서서히 마음을 여시고 자기집으로 인도하여 냉수까지 대접하시던 할머니.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잔치에 오세요. 침도 맛으시고 이발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자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 주님께 기도드리고 다 맡기고 전도를 나가보니 모두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성령님께서 심방하신 흔적이 분명했다. 3년전 중풍병자 할머니, 그리고 긴 세월동안 돈, 시간, 정력을 다 소모하신 할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침술치료를 하자 조금후에 팔이 약간 편졌다. 곁을도 달라졌다. 저녁 구원초청 시간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입이 선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목사님과 가정 방문하여 예배드렸다. 이 가정은 부처를 떠나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다. 100가구 중 60여명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 노인장의 총무인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책임지고 전도하겠다고 공언하셨다. 주님! 감사해요. 그의 외에도 28세된 청년이 아가씨와 그의 모친의 절형, 그야말로 그의 가족은 귀신이 처절하게 공격하고 있는 절망스런 가정이었다. 전도대원이 1시간 찬양하면서 복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 가정도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왔다. 또한 헌신된 이·미용사의 활약 또한 놀라웠다. 구원초청의 시간에 10교구 여성기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다. ‘이곳 못말미 어찌면 이곳 인생선을 선택할까’ 주님! 예수님을 사심을 선택할까 아니냐는 영생의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라도 불성실과 열심히 듣고 계시는 할아버지 같은 성령으로 일어나 예수 믿겠다고 하신다. 이런 할아버지는 어디서 못했지’ ‘내가 마음으로 믿습시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 믿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실한 가정들을 목사님을 모시고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서울로 향했다. 전도하라고 드리고자 까맣게 잊고 있었다. 관철, 고혈압, 약한 체질, 당뇨가 있어 입원할만 기지고서도 이 농어촌 전도에 참여하신 헌신도의 10교구 식구들, 후방에서 지역별로 기도의 날을 정해놓고 집중 기도하신 10교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100% 모두 하셨습니다’라고 믿어질 쉼표와는 더은 해가 많았다. 주님의 음성이 땀의 자취에게 모두 그리고 빨리 들리길 수 있으면 한다.

계룡산 무속인촌에 전도하다 생가일



한 속 정 (집사, 16교구)

16교구 농어촌 전도지인 예지교회에는 공주시 계룡면 하대1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못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이 나라의 무속인들이 자랑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다. 교구 상반기 계속된 기도와 7월10일부터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냐”는 말씀에 의지하여 릴레이금식기도를 시작하였다. 전도방면으로는 사영리 소재와 교구 목사님의 전도대원을 위한 프린트물이 전도대원들 손에 들려졌다. 전도대원들의 릴레이금식기도가 16일로 끝나고 17일부터 19일까지는 교구식구들의 전폭적인 금식기도가 전도대원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아침7시에 출발하여 계룡산으로 향하는 차 속에서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날부터 봉사하신 원술의료방에 이어 이·미용 전도팀이 합류한 둘째날은 교회 앞마당과 성전 안이 들뜬다는 마을 아라과 이발과 머리과 마을 위한 마을 사람들로 만원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려 집마다 다녔지만 주민들이 발로로 느로 나가 있어서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둘째날 이후에는 아예 명장집을 사서 그교 발원에 동행하기로 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셋째날 오전에 일어나고 계룡교의 유영기 집사님의 인내로 무당집을 30여명 데 전도하신 정현민 목사님은 길가에 서 누운가을 기러기는 청룡암의 큰무당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30여분만에 자신도 그전에 감리교회도 다니고 장로교회도 다녔다며 자신도 하나님을 알고 싶노라며 자신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전한다고 하며 황성에 제자가 있고 자신의 신도가 천명이나 있다고 자랑하였다. 목사님은 때로는 자예로움으로 권고하기도 하고 강력한 말씀으로 매기기도 하며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계속 권하자 드디어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하며 신앙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모인 전도대원 모두 함께 감사기도하였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성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교회에 가기를 청하자 기뻐하는 듯 하더니 못이기는 척하며 목사님의 처제들과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얼굴들이 되었다. ‘이 무당은 서울에서 45원승 버스 5대로 한꺼번에 대절하여 찾아오는 무당이랍니다.’

이번 농어촌 전도기간 동안의 전도를 통하여 신도가 목사님 식구를 제외하면 12명 정으로 예지교회에 영접한 사람이 23명 사영리를 듣고 영접을 추후로 미룬 사람 94명, 사영리를 전하기 전에 거부한 14명과 아예 듣지 않으려고 피한 17명을 포함하여 도합 148명에게 가까호 호 방문하여 전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우간다 단기선교를 앞두고

이성은 (고등부 1학년)

아빠 엄마, 딸 성은이에요,
이 편지를 보고 계실 때쯤 외딴마을 우간다로 보내고
간정하고 계실 두분 얼굴이 눈에 선하네요, 저도 출발
일이 가까워질수록 처음과 달리 조금씩 두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실 것을 믿거든요, 아빠,엄
마도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우간다팀에 늦게 합류하
게 되고 단기선교를 갈 수 있게 되기까지 주님의 계획
이 놀랍기만 합니다, 선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가
지고 있던 저를 JLMTC 훈련에 참가하게 해주셨고, 중
간에 저의 고마와 게으름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간다팀에 허락하여
주셨지요, 사실 저희 팀에 처음 합류할 때까지 전 구원
의 확신이 없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과연 무엇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중간에 합류하는 데다가 모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란 제가 짐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도 했었습니까, 그
런데 감사하게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 잘 챙겨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준비도 잘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 팀 본들과 함께 하고자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구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
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인형극
을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구요,
저희가 하는 인형극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
면 좋겠어요, 저희 팀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셨요, 저
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것들과 이 마음 사역팀, 목사
님, 장로님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우간다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
요,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 하시는 일을 마치리 할에는 나의 생
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사도행
전 20: 24),

하나님의 섭리

이사라 (고등부 2학년)

7월 24일 나는
30여명의 고
등부 친구들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강원도 정
선의 구절중앙
교회, 마차중앙
교회, 미산 교회
로 보내졌다. 작
년에 성경 학교
교사로만 봉사했
었기에 이번엔
축조 전도에 대
한 기대가 컸다.

둘째 날 미산
교회 주변의 마
을 축조 전도를
했다. 2인 1조로
구역을 나누어 하였는데 산에 있는 마을에서 집과
집의 거리가 매우 멀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냉
정하고 완강하신 분들도 많았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분, 뻔한 처단만 보시는 분... 더구나
어떤 아저씨는 낚시를 하시고는 친구에게 자꾸만
술을 권하시며 전도를 하려면 진심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 머리를 맴돌았다. 과연 내가 지금 어
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했다. 너
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거의 불구에 가까운(대부분
도 가리시기 어려움)함마니에서 혼자 방에 방치되신
채 우리를 보시자 너무 반가워하시며 교회에 가고 싶
어도 가실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
었다.

자꾸만 마을 잔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까 그
함마니를 휠체어로 마을 잔치에 모셔다 드리고 이변에
는 차를 타고 마을로 향했다. 계속 안 오시겠다고 하시
던 함마니 한 분이 차에 타셨다. 그리고 밤길 일 갔다
오셨다며 완강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차량까지 하
시며 일어났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들을 차에 태
워 드리고 걸어오면서 역시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은 어떤 방법으로도 부르신는 섭리를 느꼈다.

이런 체험은 셋째 날 마차 중앙 교회 마을 잔치 때도
계속 되었다. 밤에서 '함마니 보내지 뭐...'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자리잡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셨고 친구
들과 약속이 있어서 싫다고 했던 중3 남자아이는 친구
들까지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었다. 물론 기쁨만 있었
던 것은 아니었다. 정말 꼭 오시겠다고 세게손가락 걸
고 약속까지 하셨던 함마니 생각에 모서리 갈 자가 없
어서 교회 성도도 아닌 어떤 오빠에게 차까지 얻어 타
고 갔는데... 갑자기 손자가 와서 안 된다며 완강히 반



대하셨다. 차 태워다 준 오
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 민망하고 할머니가
원망스러웠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차 태워다 준 오
빠와 그 누님 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셨다!

우리의 바램대로는 아
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채
우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
견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역
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를 체험한 것
의

에 또 크
게 얻은
것이 있
다면 기
쁘게 섬
기는 자
세다. 정
그러며 무
한하고 부
족했던 선생
님도, 자꾸만 일
시던 선생님도 이젠 감
사하다. 지금 나는 우리가 그곳에 뿌
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길 바라며 오직 기
도할 뿐이다.

38th 여름 수련회

"나를 보내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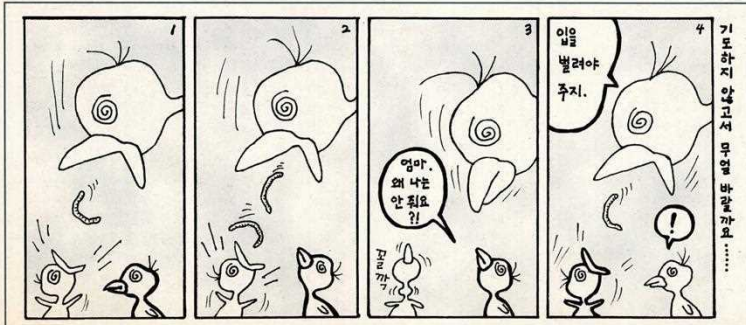
고등부는 오는 7월(월) ~ 9월(수)까
지 2박 3일간 우리 교회 기도원에
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에 제
38회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사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
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서'를 주제로, 찬송가 271장을 주
제 찬송으로 삼고 있는 이번 수련회의
강사로 김영훈 목사, 이정철 전도사,
조숙자 전도사가 수고합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부흥
회', '특강', 'Who am I?', 'METTE
M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언제
든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내가 여
기 있다"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
할 수 있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세상
이 무릎꿇지 않는 젊은이'의 비전을
품고 있는 고등부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된 전도자와 선교사의
양성을 위해 또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
으려 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교회학교 고등부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
과 참여, 그리고 비전을 품은 젊은이들
을 향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고등부)

만평

글 : 그림/김범현



우리는 사랑의 빛이자

김 동 욱 (집사, 14교구)



육체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기복하신 명령이며 크신 사랑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것은 험악한 자의 자기변명처럼 들린다.

우리가 때로는 죄인이라는 증거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의없이 세상에서 강해지고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만 두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를 모두의 모습은 어지럽고 더욱더 큰 죄악 가운데 물들어 갈 수밖에 없으며 그런 우리들이 영원적으로 더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증거인이 된은 불분명하다. 이런 죄인된 우리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통렬히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날마다 우리는 회개는 눈물을 흘려야 했으며 날마다 부르짖어 심령의 변화를 주님께 간구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심히도 연약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때론은 모습을 적당히 숨긴 채 주님을 수시로 고백하고 육신의 인력과 세상의 축복만을 도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크리스천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말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옷을 버리시려는 커녕 무엇지도 알았으니 자서로 삼으시

며 주의 일꾼으로까지 들어서 사용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을 도대체 이 세상의 어떤 것대로 측량할 수 있을 우까? 이 크신 사랑을 힘입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적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임이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당연히 사랑의 빛을 잔뜩 진 자들이다.

이제 그 사랑의 빛을 갈아야 할 우리들로서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모두의 신앙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다할지라도 육체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를 모두가 밝히 깨달아 갔으면 한다.

금요 구역예배 팸방

주간중역은 9월부터 구역으로 찾아갑니다.

주간중역에서는 9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각 구역에서 진행되는 구역예배를 취재하여 6면에 기사화하여 보도했다. 팸방의 목적은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구역소 개입으로써, 중역의 모든 구역예배가 더욱 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목표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아무쪼록 중역의 구역장들께서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바라며,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1교구 김천재장로님은 위암으로 중앙병원에서 수술후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며,

이귀임성도께서는 대장암 팔기로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고통을 잘 견디시기를 원하십니다.

5교구 김해두성도님은 김동탁집사의 부친이시며 다리절단 수술후 악화되어 더 많은 기도과 필요한 상태로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6교구 김현성성도님은 유방암 재수술후 자택에서 항암제 투약중이시며, 윤향신성도님도 유방암 및 뇌종양 수술후 자택에서 항암제 투약중이십니다.

8교구 박화순집사님은 전이된 임파선암으로 치료중이며, 정정근집사님은 급격히 감퇴된 시력 이 회복되기를 기도중이십니다.

9교구 유금란성도님은 자궁암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셔서 자택에서 치료중이십니다.

15교구 이동숙집사님은 위암으로 중앙병원에서 재수술후 경과를 기다리는 상태이고, 김정숙집사님은 난소암으로 4차수술을 받고 재입원하여 입원치료중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환자분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과 돌보는 이 없이 외롭고 병상에 계신 유금란 성도를 찾아가 위로와 더불어 기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진송

유년의 아픔을 달래던 노래



최자영 (호산나침양대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리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알겠네

어린 시절 나는 집근처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 다녔다.

당시 6·25 한국전쟁 직후의 서울은 완전 폐허였고, 거리마다 굶주린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헤매었다.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천국어린이원 있는 선교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나는 그곳을 매일 찾아가 아이들과 놀곤 했다.

토끼놀이 언덕을 뒤덮고 있는 그곳 가까이 가면, 여러 명이 입을 모아 부르는 찬송가 205장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18번이었는지 아이들은 그 찬송밖에 몰랐다. 풍향기가 섞여 멀리서 그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기쁘고 반가워 한담을 달랠 때가곤 했다. 아카시아 꽃이 온통 산을 덮고 있는 초여름으로 기억되는 어느날이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그곳 아이들은 달치는 대로 꽃을 따먹었다. 저녁 식사 때 아카시아 꽃으로 나물을 묻혀 먹었다며, 어떤 언니는 땅주리까지 가지고 와서 넘치도록 꽃을 따서 담았다.

그날 저녁 어린이원 전체가 식중독에 걸렸다. 약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치료를 받았는데 나는 금방 나아졌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불리고 말았다. 한참 후에 그곳을 찾았을 때 아이들은 다친 곳으로 옮겨가고, 그토록 아름답게 넘치던 찬송도 끊기고 말았다.

내 유년을 슬프고도 아름답게 장식했던 이 찬송에 작사자와 작곡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나혼자 천국같은 없잖아요

눈물의 씨앗

송정배 (편사, 13교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자나깨나 불쌍한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소치한 한 성도의 전도과정과를 말하고자 한다. 친구와 함께 축회전도를 나갔다. 많은 가정을 다녔지만 별로 신통한 응답을 듣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가려다가 한집을 더 방문했다. "계십니까? 뚝뚝 문을 두들겼을때 한노인이 문을 열어주시며 여씨며 "누구세요?" 물으셨다.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예수는 한 민족만 잠깐 들어와서 쉬어 가세요." 이 얼마나 반가운 대답인지 우리는 성경 들이서 있으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요구르트를 내놓으시면서 자기 아이기를 말씀하셨다. 자기는 대대로 불교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작은딸이 예수님을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 딸이 친정에 오면 밤새도록 오직 예수이시기만 하다가 돌아갈때는 울면서 간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은 그분의 이야기만 들어

주고 다시 찾아 오셨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며칠후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갔더니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번에는 우리이야기를 전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면서 남에게 베풀어도 죽으면 하나님께 선함을 받아 지옥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흘려 죽어주셨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이미 예수믿고 천국백성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안믿어서 지옥가신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딸 혼자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꼭 예수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갑시다."

그후 몇번 방문하여 절거지도 거들어드리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꼭 한번만 교회에 나오시라고 부탁드렸다. 몇번이 나 사단의 방해로 약속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우리 총회교회로 나오셔서 예수 잘 믿으시다가 지난해 소천하셨다. 사망하는 딸의 눈물의 씨앗을 우리 거 거둔 것이다.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길 꼭 작정된 자는 다 믿리라. 아멘!



영아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한 영준 (전도사, 영아부 지도)

영아부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였다. 영아부에서 사역하던 중 악보를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반주를 해주는 선생님이 계시어서 참 좋았는데 갑자기 사임을 하셔서 새로운 선생님이 필요하였다.

갑작스런 일이었는지라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니라!"(롬 8:28)

날씨가 임박해 왔지만 영아부라는 특별한 부서에서는 반주자를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음악을 전공한 성도를 대부분은 찬양대에서 봉사하기를 위해서 우리 부서의 예배의 분위기를 온혜스럽게 할 일꾼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본인은 부족하다며 사양을 했지만, 순종함으로 함께 사역하게 되었고,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오래지 않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자신의 두 아이를 돌보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악보도 없이 반주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지만, 찬양 인도자의 안내로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제는 오히려 두 분의 콧방울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른다. 그리고 교사 수련회와 같은 1박2일 모임

에는 두 아이를 위해 해가 함께 동행해 주어서 모든 교사들의 마음에 훈훈함이 더해지고 또 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영아부에는 교회의 주인되신 예수님을 위해 열마로서 이른 아침 가족들을 쫓아다니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직장생활로 인위일 동안 쌓인 피로가 가득한 성도들이 아침 7시부터 오셔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이름도 없이 맞고 없이 예수님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계시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써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되신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예쁘게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됨을 감사드리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영아부의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임은미 (유치부 교사)



○ 유치부에서 처음 맡았던 아이들이 5학년이 된 것을 보니 세월이 빠름을 느낍니다. **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한 반이 맡겨질 때 초종초한 난망으로, 해맑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내 손을 꼭 잡고 만지는 아이들이 붙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투명한 유리를 보듯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들을 통하여 나도 그 천진난만함으로 빨라들어가고 싶습니다.

한해 한해 유년부로 간 아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착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여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한 아이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모범생을 원하고 착한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모나고 거칠고 다들 어지지는 않은 아이들은 교사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양육할 때에 그 아이는 장차 이 나라와 교회에 귀한 기둥으로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하여 선입견을 버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달란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사랑 위에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교사로서 큰 보람과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년을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며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주신 사랑 잘 감당하겠습니다.

질리의 생

레위기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은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끝까지 읽기 어려운 성경? 물론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기도 하겠지요? 그렇다고 귀중한 말씀을 뛰어들어 가서는 안되지요? 그런 생각이 들면 '내-레위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극복하십시오.

우선 레위기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영어로는 "레비티커스(Leviticus)"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레위타콘(Leuitikon;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아마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 지파에서 유래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주께서 부르셨다"는 의미가 담긴 '와이크라(wayyikra)'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본의 첫 단어를 성경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레위기의 의미는 이 정도로 해두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레위기를 읽을 때는 꼭 '거룩(holiness)'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의 초점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나 절기, 모든 규례와 사람들에게 대하여 항상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를 읽으면서 모든 제사와 예식 그리고 절기 등, 그 자체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영적인 진리들을!

그렇다고 레위기를 무작정 읽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머리 속에서 그림 그리면서 읽도록 하세요. 물론 다른 성경들도 다 그 상황을 상상하며 읽어야겠지만, 레위기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대치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종이에 그려가면서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거룩이라는 관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구분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1장-5장까지는 5제사, 6장-7장은 제사법, 8장-10장은 제사장, 11장-16장은 백성, 17장은 제단, 18장-20장은 거룩한 백성, 21장-22장은 거룩한 제사장, 23장-24장은 거룩한 절기, 25장-27장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요? 하지만 이렇게 레위기를 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뜻 스치다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늦은 저녁 지하철에서 만난 친구. 양손에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소풍객들이 가득한 가방이 무겁게 들려져 있고, 그의 목격자는 한 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먼 곳.

우리가 서 있던 앞 좌석에서 사람이 일어나자 좌석에는 다급하게 친구를 좌석 쪽으로 밀어냈다. '앉아, 앉아!'

"아니야, 괜찮아." 자리를 양보하는 인사말로 일어들은 나는 "나도 괜찮으니가 내가 앉아."

그러자 "여긴 경로석이지 않나..."

"...!!"

얼마 전, 교회 후배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사소한 일에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초라한 양식 때문에 행여나 자리를 양보해야 할까봐 앉으면 눈부터 감고 졸면서 열심히 고개 방이를 쫓곤 하던 나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다.

크리스천들이 매사에 더 순해 보기를 싫어하고, 그렇다 보니 양보도 없다는 불평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서 많이 듣게 된다. 우리가 늘 자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온혜없이 사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리스천이라도 대부분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땅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편진실)

교회소식 / 새가족 소개

알림

1. 방송실 카메라 봉사(지천양애배) 한 금지역 동영 봉사(지천양애배) 구합 중원교회 방송실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실히 봉사할 카메라 봉사자와 한글자막봉사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충현교회 세례교회, 카메라봉사자는 대북부 이상의 형제 자매 (초보자 가능)
문의: 552-8200(교한224), 562-4872
2. 크로마하프 대림기도회
하나님께 크로마하프를 찬양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 구자남 전사(514-6047)
김종운 집사(548-6916)

모임

1. 장로 일요새벽기도회
일시: 7월(월) 새벽기도회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님 화요일새벽기도회
일시: 8월(화) 새벽기도회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감사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08호
4. 고령전도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메추라기홀
5. 경찰전도회 월례회
일시: 13일(다승주일) 15:00
장소: 메추라기홀
6. 안수집사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12호

7. 권사 제1회 월례회
일시: 9월(수) 주일부 예배후
장소: 양아부실
8. 남녀전도부 연합 회장 부회장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칼빈홀

남녀전도회

1. 바울 1회 월례회
일시: 19일(토) 18:30
장소: 교회동문에서 모임
이병영집사(555-6137)
2. 한나 4회 월례회
일시: 13일(다승주일) 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409호
3. 한나 6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제2교육관 4층
4. 한나 11회 월례회
일시: 13일(다승주일) 교구모임후
장소: 메추라기홀
5. 에스더 4회 월례회
일시: 8월(월) 11:00
장소: 양아부실
6. 루디아 3회 월례회
일시: 16일(수) 12:00
장소: 양아부실
7. 미리아 3회 월례회
일시: 16일(수) 12:00
장소: 교육관 109호
8. 미리아 4회 월례회
일시: 10월(목) 10:30
장소: 교육관 회관

별세

1. 김점순 집사

(박해자 성도의 모친, 이삼구 성도의 장모, 9교구) / 7월 26일 별세, 28일 장례

1. 이삼구 집사
(양창희 은비권사의 아들, 김영숙 집사의 남편, 1교구) / 7월 28일 별세, 29일 장례

주소 변경

1. 서범영 장로, 이귀분 권사
☎031-565-3963

기도원 모지 이상 공고

충현기도원에 소재한(경기 광주 대영리 산9-1) 묘지(墓池)의 유족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고, 묘를 고인의 연고지 또는 충현동산으로 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이장 대상묘: 충현기도원 내의 묘지(제170호~7)
- ② 이장 기한: 2000년 10월까지
- ③ 이장 신고: 충현동산의 교회사무국에 반드시 신고할 것
- ④ 이장 문의: 충현동산은 031-764-9617, 사무국은 구내전화 406번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기간: 8월6일(1-4교구) / 8월13일(5-8교구)
8월20일(9-12교구) / 8월27일(13-17교구)
시간: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장소: 교육관 1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 2000년 사업계획, 시산표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예금통장, 영수증철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719	신정환	1	루디아		724	이원희	14	베드로	이진규(7)	729	황은실	14	청년1부	강민아(19)
720	박장숙	1	마리아		725	방희동	15	요한	이진규(7)	730	조희선	19	청년1부	안병호(17)
721	이정환	4	청년1부	이상희(4)	726	이종만	16	베드로	박태진(16)	731	윤현옥	1	고등부	
722	김종인	6	소망부	조병국(6)	727	석옥상	19	청년1부	김신자(10)	732	이윤자	3	청년부	
723	윤성현	7	베드로	이명희(7)	728	장영희	7	에바다부		733	강덕암	3	베드로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석영' 성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아기를 들었지만 작년11월에 생긴 차음으로 교회에 오셨답니다. 이석의 집사님의 인도로 좋은 곳이 있다고 하기에 따라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 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43년간을 오로지 시계 연구하는 일로 보내셨으며 그일이 정산통일을 하여야 하기에 다른일로 정산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아기를 꺼내다가 '아, 글세 성경을 연구해야 알게 될텐데... 시계 연구하는 시간이 많고 툄다 하려면 마음이 혼란하게 되어 아무일도 할 수가 없어 성경을 보지 않으니가 잘 모르자...' 하며 시간이 없으시답니다. 그시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성경도 연구하실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박판선·김희부' 부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새가족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결혼했고 주교 대매매만 참석하여 주일을 지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어 부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두 아기를 낳아 키우며 그렇게 교회생활을 하다가 어느날 성경에 대해 궁금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부부는 마음을 같이하여 새가족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세계적인 성경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새가족부 양육반 과정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새가족부 집회를 통해 구원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됨을 확신하여서 기뻐고, 이제부터는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생활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숙경(새가족부 통신원)

원로목사 김창인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김의철 조진근 김은호 노광현
신교목장장기회장국회목사동원세기
- 오진국 이영환 윤인현 최태원
제2교목장장기회장국회목사동원세기
- 임필성 강종용 오정현 이훈
장기회장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남현우 서용석 장운석 김양길
제3교목장장기회장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문용구 조진재 김종구 최무길
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김진재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상철
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이하영 박진근 김인관 이병욱
제4교목장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안종욱 최희만 임무현 이종식
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최기홍 김재현 장종용 전종필
제5교목장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이정우 김대환 황영일 손철
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한승규 김준원 김영수 장종식
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김기환 권운철 이형수 안종원
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황의만 김동환 안종원 안종원
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최성현 최성현 최성현 최성현
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국회목사동원세기

■ 부목사

- 이홍성 이종대 전정훈 이승수 정갑신
장현민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진식 서광진 이준경 박인기
이성기 류병희 노경국 이태훈 이종철
김영준
- 교육목사 연인일 정종호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 신교사 이종국 안석현 정은희
이종대 이종대 이종대 이종대
- 찬양감독 김인규 ■ 감도사 한승일
■ 어전도사
장영희 임태구 김장자 배옥민 최지혜
송형자 신동하 윤인숙 김옥운 한영준
김진식 황순애 이숙주 김갑자 안태순
최효심
- 고령전도사 박양덕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참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8:00	본당
III	오전 10:00	본당
IV	오전 10:00(동원세기예배)	본당
V	오전 3:00 (월·수·금·토·일 제외)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간행(한국어)Calvary
찬양 예배	오전 5:00	본당
주요 예배	1:00~11:00(오전 7:30)	본당
금요일 예배	오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